

##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종단적 연구(2001-2002년)

김준호\* · 김선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학교폭력에 대한 종단적 연구로서, 동일한 학교를 대상으로 2001년과 2002년에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 피해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2002년의 결과를 2001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전체적인 피해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지 초등학생의 피해율이 높게 나타난 유형이 많아서, 비행의 피해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녀별 피해율은 전반적으로 남학생의 피해율이 여학생들보다 높으나, 휴대폰 음성 문자를 통한 사소한 폭력 피해는 여학생들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온라인과 관련된 폭력이 오프라인 폭력에 비해 더 많다는 점이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되었다.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들은 '같은 학교 같은 학년 학생'인 사례가 많았고, 폭력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는 '방과 후'에 그리고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에 '교실 안이나 복도' 등이 많았고, 사실보고 대상으로 초등학생은 주로 '가족'인 반면, 중학생 이상은 친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에 비해 광역시나 서울의 학생들에게 피해가 잦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2년과 2001년 사이에는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아직도 적지 않은 학생들이 다양한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나사렛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 I. 서 론

반포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을 기화로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 결과를 석·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한정한다고 해도 1999년까지 154편에 달하며(청소년개발원, 2001:15), 각종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합하면 170여 편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방대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가 너무나 상이하여 아직까지 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도 하기 힘든 실정이다. 예를 들면 이상균(1999)은 조사대상자의 58.9%가 학교폭력의 피해경험이 있다는 결과를 제시한 반면, 장명신(1998)은 13.6%만이 피해경험이 있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피해율이 지방에 비해 높은 결과를 보이나 같은 지역에서도 피해율 편차는 매우 커 1999년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이상균(1999)은 58.9%로 보고하는 반면에 이병기(1999)의 연구는 38%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실은 다음의 두 가지 문제점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첫째는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고, 두 번째 이유는 연구방법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이다. 먼저 학교폭력의 개념부터 살펴보면 폭력의 발생장소, 가해자의 신분 및 가해자의 신분에 따라 가장 광의로 규정하면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어떠한 장소에서 발생하였건 학교폭력으로 간주할 뿐 아니라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력까지 학교폭력에 포

함할 수 있다. 가장 협의로 규정하면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생들 간의 폭력일 것이다. 아울러 폭력의 범위 역시 다르다. 물리적 폭력만으로 제한할 수도 있고 물리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 모두 포함할 수 있으며, 폭력의 정도 역시 비교적 심각한 폭력만으로 규정할 수도 있고 사소한 폭력까지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연구방법의 차이도 적지 않아, 지역적인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 지역 조사는 평균 47%로 나타나는 반면에 광주와 전남 지역의 경우는 30%로 나타난다(청소년개발원, 2001). 또한 조사대상자의 범위에 따라 서로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생을 포함하여 고등학생까지 조사한 경우와 고등학생만을 조사한 연구결과 역시 다르다. 아울러 일반 고등학교의 결과와 실업계 및 야간 고등학교를 포함시킨 경우 역시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즉 모집단의 범위와 표본추출 방법에 따라 당연한 결과지만 서로 다른 피해율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연구결과 중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중학생의 피해율이 고등학생에 비해 높다는 점과 남학생의 피해율이 여학생의 피해율에 비해 높아, 중학교 남학생의 피해율이 가장 높고 고등학교 여학생의 피해율이 낮다는 것을 제외하곤 일반화가 매우 힘들다. 물론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조사방법 역시 연구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는 학교폭력의 정확한 추세를 알 수 없으며 따라서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역할을 하기도 힘들다.

이러한 점에 감안하여 본 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동일한 개념과 동일한 연구방법을 적용한 시계열적 종단적 연구를 시도

하였다. 전국적으로 2001년과 2002년에 같은 학교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모집단이 동일한 일종의 패널조사인 것이다. 이와 같은 조사 설계를 통한 조사는 우리나라 학교폭력 조사에서는 처음 실시된 것이며 이와 같은 조사는 학교폭력 실태 파악, 특히 추세를 알아보는 데 가장 정확한 조사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비록 2001년과 2002년의 비교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나 앞으로 지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지금까지 1회성 조사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사라 아니할 수 없다. 비록 1년 차이기는 하나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추세를 알아보는 첫 번째 조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 II. 학교폭력의 개념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그리고 연구에 따라 다르다. 학교폭력이란 용어에는 4가지 구성요소가 있기 때문에 각 요소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 범위가 다를 수 있다. 첫 번째 구성요소는 피해자이다.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피해자를 학생으로 규정하는 한편 광의로 규정하면 학교라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의 피해자로 확대될 수 있다. 광의의 학교폭력에서는 학생뿐 아니라 교사도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Archer & Browne, 1989). 외국에서는 교사에 대한 폭력을 포함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국내 연구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둘째, 폭력 발생 장소와 관련된 문제로서, 협의의 학교폭력

은 학교 교내에서 발생한 행위로 제한하는 반면에 가장 광의로 정의하면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장소에 관계없이 학교폭력이라고 볼 수도 있다. 사실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 중의 하나가 부모라는 연구 결과도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이 주말이나 휴일에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도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교 교내에서 발생한 폭력만을 학교폭력으로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부모의 폭력 등을 포함하면 학교폭력이라기 보다는 학생 및 청소년 폭력피해로 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학교 교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규정한다면 등하교 길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학교 수업 시간 중에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학교 근처로 불러내어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제외된다. 따라서 학교 교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물론이고 등하교 길 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포함하는 것이 보편적인 정의라고 사료된다.

셋째, 가해자의 신분과 관련된 것으로서 가해자의 신분 역시 학생으로 제한하는 것이 가장 협의로 규정하는 것이라면, 학교 주변 불량배는 물론이고 부모와 교사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부모와 교사, 특히 교사의 체벌에 대한 논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교사와 부모의 체벌의 훈육적 측면을 강조하면 폭력이 될 수 없으나, 이 역시 폭력으로 규정하면 학교폭력의 범위는 매우 확장된다. 대부분의 연구는 부모와 교사를 제외하고 학교폭력을 정의하나 가해자를 학생, 특히 같은 학교 학생으로 규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즉 가해자의 신분을 학생은 물론이고 학교주변의 불량배를 포함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폭력행위에 대한 논란이 있다. 가장 협의의 폭력

은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극심한 신체적 상해를 주는 행위”(Berkowitz, 1974)라고 규정할 수 있는 반면, 광의로 규정하면 “모든 도구적 공격(instrumental aggression)과 증오적 공격(hostile aggression)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윤진, 1996). 혐의로 규정하면 집단 따돌림이나 금품갈취와 같은 행위가 신체적 가해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폭력이 아닐 수 있으나, 광의로 규정하면 언어적, 심리적, 정신적 피해 역시 폭력으로 간주 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외 학교폭력 연구의 대부분은 학교폭력을 광의로 규정한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청소년 대화의 광장, 1996; 청소년 폭력예방 재단, 1996; 치안연구소, 1996; 한국청소년개발원, 1995). 대부분의 연구는 신체적 폭력, 언어 및 심리적 폭력으로 구별하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성폭력 역시 중요한 폭력으로 간주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광의의 폭력에 더하여 정보화 사회와 더불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사이버폭력을 포함하였다. 인터넷 강국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도는 매우 높다(한국정보문화센터, 2000; 정보통신위원회, 2000;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1).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게시판, 게임 등과 더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이버 공간 및 휴대폰과 관련된 폭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러한 폭력에 대한 연구가 없어 본 연구에서 처음 그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과 표집

본 연구는 종단적 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2001년과 2002년 모두 동일한 학교를 선정하였다. 초등학교는 5학년,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선정된 응답자는 2001년과 2002년이 다르지만, 동일한 학교를 대상으로 2년 연속하여 조사하였다는 점이 기존의 연구와 차별된다. 또한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가 주로 서울 지역의 학생들만을 표본대상으로 삼고 있는 데 반해, 본 조사는 전국 단위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12개교, 중학교 15개교, 고등학교 13개교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표본을 성별로 구분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설문조사 대상 남녀 및 초·중·고교별 분포

|      | 남학생         | 여학생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전체학생       |
|------|-------------|-------------|-------------|-------------|-------------|------------|
|      | 명도(비율)      | 명도(비율)      | 명도(비율)      | 명도(비율)      | 명도(비율)      | 명도(비율)     |
| 2001 | 1984(50.5%) | 1944(49.5%) | 1303(32.8%) | 1633(41.1%) | 1041(26.2%) | 3977(100%) |
| 2002 | 2144(51.7%) | 2005(48.3%) | 1429(34.0%) | 1707(40.6%) | 1073(25.5%) | 4209(100%) |

#### 2. 학교폭력 척도

본 조사 연구의 목적을 고려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학교 폭력 피해의 측정은 크게 네 가지 유형을 중

심으로 이루어졌다. 즉, 금품갈취, 협박, 구타를 포함하는 (1)협박의 폭력과 억지로 심부름시키기, 놀림, 따돌림을 포함하는 (2)괴롭힘 그리고 (3)사이버 폭력, (4)성폭력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각 유형의 학교 폭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은 2001년 조사 시 사용된 설문지의 내용과 간게 사용했으며, 각 문항별로 구체적인 표현을 써서 유형별 학교 폭력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했다. 그리고 각 유형마다 사소한 유형과 심각한 유형을 구별하여 질문하는 방법을 썼다. 이러한 방법으로 협박의 폭력, 괴롭힘, 사이버 폭력은 각각 다섯 가지의 하위 문항을, 성폭력에는 두 개의 하위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물리적 신체적 폭력(금품 갈취 협박 구타) 피해 경험

본고에서는 '물리적 신체적 폭력'을 (1) 금품갈취, (2) 협박(혹은 언어폭력), (3) 구타(혹은 신체 폭력)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 가. 피해를

##### (1) 금품 갈취



금품갈취 피해는 전체 학생 중 9.4%가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1년도의 10.1%에 비하면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다. <표 2>는 2001년 2002년 남·녀별, 초·중·고별로 금품 갈취 피해율이다. 2002년도 금품 갈취 피해율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남학생의 피해율이 13.6%, 여학생 피해율은 5.0%로 거의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거의 세 배 정도 많은 피해율을 보이고 있고, 초등학교생 피해율은 11.0%, 중학생 피해율은 12.1%, 고등학교생 피해율은 3.3%로, 중학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으나, 2001년도 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초등학교생의 경우에는 9.5%에서 11.0%로 증가한 반면, 중학생은 14.8%에서 12.1%로 줄어들고, 고등학교생은 8.8%에서 3.3%로 줄어들어, 초등학교생이 전체 피해율에서는 가장 높지 않으나, 유일하게 피해율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금품갈취 피해율

| 년도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합계    |       |
|----|-------|-------|-------|-------|------|------|-------|-------|
|    | 2001  | 2002  | 2001  | 2002  | 2001 | 2002 | 2001  | 2002  |
| 남자 | 13.8% | 15.5% | 20.8% | 18.6% | 5.7% | 4.8% | 14.5% | 13.6% |
| 여자 | 5.1%  | 6.0%  | 8.6%  | 6.1%  | 1.8% | 1.3% | 5.7%  | 5.0%  |
| 합계 | 9.5%  | 11.0% | 14.8% | 12.1% | 3.5% | 3.3% | 10.1% | 9.4%  |

## (2) 언어폭력 : 협박

협박이나 위협을 주로 측정한 언어폭력 피해율은 11.2%로 나타나 2001년도의 9.4%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은 2001년도 2002년도 남녀별, 초·중·고 별로 언어폭력

피해율을 나타낸 표로서, 전체 피해율을 보면, 2002년도는 11.2%로 2001년도의 9.4%에 비해 약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남녀 별로 살펴보면, 2002년도 남학생의 경우는 14.8%, 여학생의 경우는 7.4%로 거의 두 배 정도 남학생이 언어폭력을 더 많이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1년도도 2002년도와 마찬가지로 남녀간의 차이가 거의 두 배(남학생 12.2%, 여학생 6.6%)였기에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 피해율이 14.8%, 중학생이 12.3%, 고등학생이 4.9%로 초등학교가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초등학교 남학생이 19.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중학교 남학생이 18.5%로 가장 높게 나타난 금품갈취 피해와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즉 초등학교들 사이에서는 언어폭력 헐박까지의 비행이 보이지만, 중학생이 되면 이보다 더 나아가 금품갈취 등의 좀더 발달된 비행 행위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금품갈취 피해에서 초등학교가 유일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기에 앞으로는 초등학교들 사이에서 언어폭력 헐박 피해와 더불어 금품갈취 피해도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3> 언어폭력 헐박 피해율

| 년도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합계    |       |
|----|-------|-------|-------|-------|------|------|-------|-------|
|    | 2001  | 2002  | 2001  | 2002  | 2001 | 2002 | 2001  | 2002  |
| 남자 | 14.9% | 19.8% | 14.5% | 16.9% | 5.3% | 6.1% | 12.2% | 14.8% |
| 여자 | 8.5%  | 9.3%  | 7.4%  | 8.1%  | 3.0% | 3.3% | 6.6%  | 7.4%  |
| 합계 | 11.7% | 14.8% | 11.0% | 12.3% | 4.2% | 4.9% | 9.4%  | 11.2% |

### (3) 구타 신체폭력

신체에 대한 폭력 피해는 전체 학생 중 10.6%가 피해 경험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1년도의 9.1%에 비해 증가했다.

<표 4>에서 보면 남학생의 피해율은 15.8%이고, 여학생은  
5.1%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거의 세 배 정도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2001년도와 비교해보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피해율  
이 증가한 것에 비해 여학생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  
나, 남녀 간의 피해율 차이가 거의 두 배에서 세 배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학교별로 구타 신체적 폭력 피해율을 보면,  
초등학생은 17.4%, 중학생은 9.0%, 고등학생은 4.3%로 2001년  
도와 마찬가지로 초등학생 피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구타 신체적 폭력

| 년도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합계    |       |
|----|-------|-------|-------|-------|------|------|-------|-------|
|    | 2001  | 2002  | 2001  | 2002  | 2001 | 2002 | 2001  | 2002  |
| 남자 | 15.8% | 25.2% | 15.6% | 14.6% | 5.5% | 6.1% | 13.0% | 15.8% |
| 여자 | 8.0%  | 8.9%  | 5.2%  | 3.9%  | 1.8% | 2.0% | 5.2%  | 5.1%  |
| 합계 | 11.9% | 17.4% | 10.4% | 9.0%  | 3.7% | 4.3% | 9.1%  | 10.6% |

## 나. 피해 당시 상황

### (1) 시간과 장소

다음 <표 5>는 신체적 피해 중 하나라도 경험이 있다고 응  
답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피해를 당한 당시의 시간

을 보여주는 표이다.

<표 5> 피해를 당한 당시의 시간

단위 : %

| 연도<br>가해시간 | 초등학생 |      |      |      | 중학생  |      |      |      | 고등학생 |      |      |      | 전체   |      |
|------------|------|------|------|------|------|------|------|------|------|------|------|------|------|------|
|            | 남자   |      | 여자   |      | 남자   |      | 여자   |      | 남자   |      | 여자   |      |      |      |
|            | 01   | 02   | 01   | 02   | 01   | 02   | 01   | 02   | 01   | 02   | 01   | 02   | 01   | 02   |
| ①          | 1.3  | 0.8  | 3.6  | 1.0  | 2.5  | 3.1  | 0.9  | 5.2  | 0    | 4.7  | 4.3  | 16.7 | 2.0  | 3.0  |
| ②          | 1.3  | 4.2  | 2.4  | 7.0  | 2.5  | 4.9  | 2.7  | 5.2  | 2.0  | 1.6  | 8.7  | 0    | 2.4  | 4.6  |
| ③          | 20.4 | 16.9 | 27.4 | 24.0 | 22.7 | 26.0 | 13.6 | 19.0 | 24.0 | 25.0 | 4.3  | 8.3  | 20.7 | 21.2 |
| ④          | 10.8 | 16.0 | 8.3  | 11.0 | 9.7  | 7.6  | 8.2  | 4.3  | 12.0 | 10.9 | 13.0 | 0    | 9.8  | 10.2 |
| ⑤          | 0.6  | 2.1  | 1.2  | 3.0  | 1.3  | 1.8  | 2.7  | 0.9  | 0    | 1.6  | 4.3  | 0    | 1.4  | 1.8  |
| ⑥          | 1.9  | 2.1  | 1.2  | 1.0  | 0    | 0    | 0    | 0    | 0    | 0    | 8.7  | 0    | 0.9  | 0.8  |
| ⑦          | 33.1 | 28.7 | 31.0 | 30.0 | 29.8 | 30.9 | 32.7 | 36.2 | 26.0 | 25.0 | 39.1 | 50.0 | 31.3 | 31.0 |
| ⑧          | 23.6 | 17.3 | 9.5  | 10.0 | 20.2 | 16.6 | 26.4 | 17.2 | 30.0 | 21.9 | 4.3  | 12.5 | 20.8 | 16.4 |
| ⑨          | 7.0  | 11.8 | 15.5 | 13.0 | 11.3 | 9.0  | 12.7 | 12.1 | 6.0  | 9.4  | 13.0 | 12.5 | 10.7 | 11.0 |
| 유효합계       | 100  |      |      |      |      |      |      |      |      |      |      |      |      |      |

\* 가해시간 분류 : ① 등교 전, ② 수업시간, ③ 쉬는 시간, ④ 점심시간, ⑤ 청소 시간, ⑥ 자율학습(방과 후 교실)시간, ⑦ 방과 후, ⑧ 일요일·휴일, ⑨ 기타

\* 01 : 2001년 조사 / 02 : 2002년 조사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방과 후’에 피해를 당한 경우가 31.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쉬는 시간’에 피해를 입은 경우가 21.2%, ‘일요일, 휴일’이 16.4%를 차지하였다. 이는 2001년에는 ‘일요일, 휴일’에 피해를 입은 경우가 20.8%로 두 번째였고, ‘쉬는 시간’이 20.7%로 그 다음을 차지했던 것으로 그 순위가 바뀌었으며, 이는 ‘쉬는 시간’에 피해를 입은 경우가 증가했음을 말해준다. 한편 ‘등교 전’, ‘수업 시간’, ‘청소시간’, ‘자율학습시간’에는 이러한 피해를 입은 비율이 매우 적다. 이 표에서 ‘기타’ 항목을 ‘학교 일정 내외 시간’이 아니라고 간주

한다면, ‘학교 일정 외의 시간’에 이러한 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는 전체 58.4%가 되어 2001년 63.1%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학교 일정 내의 시간’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가 증가한 것을 말해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그리고 남녀 구분 없이 ‘방과 후’에 피해를 당한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선생님과 규율이 있는 학교에서 벗어나, 통제가 불가능한 ‘방과 후’라는 특성으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표 6>은 ‘피해를 당한 당시의 장소’를 보여준다.

<표 6> 피해를 당한 당시의 장소

단위 : %

| 연도<br>장소 | 초등학생 |      |      |      | 중학생  |      |      |      | 고등학생 |      |      |      | 전체   |       |
|----------|------|------|------|------|------|------|------|------|------|------|------|------|------|-------|
|          | 남자   |      | 여자   |      | 남자   |      | 여자   |      | 남자   |      | 여자   |      |      |       |
|          | 01   | 02   | 01   | 02   | 01   | 02   | 01   | 02   | 01   | 02   | 01   | 02   | 01   | 02    |
| ①        | 24.1 | 29.4 | 41.0 | 50.5 | 29.7 | 36.0 | 23.4 | 27.0 | 33.3 | 35.9 | 26.1 | 29.3 | 28.9 | 34.3  |
| ②        | 12.0 | 16.0 | 12.0 | 6.1  | 10.3 | 5.0  | 10.8 | 11.3 | 5.9  | 12.5 | 21.7 | 4.2  | 11.0 | 10.1  |
| ③        | 17.1 | 11.3 | 7.2  | 14.1 | 19.9 | 20.7 | 9.0  | 14.8 | 29.4 | 20.3 | 13.0 | 8.3  | 16.3 | 15.6  |
| ④        | 27.2 | 23.1 | 12.0 | 8.1  | 26.3 | 22.1 | 26.1 | 27.8 | 17.6 | 12.5 | 4.3  | 12.5 | 23.3 | 20.3  |
| ⑤        | 19.6 | 20.2 | 27.7 | 21.2 | 14.0 | 16.2 | 30.6 | 19.1 | 13.7 | 18.8 | 34.8 | 45.8 | 20.5 | 19.7* |
| 유효합계     | 100  |      |      |      |      |      |      |      |      |      |      |      |      |       |

피해 당시 장소 : ① 교실 안이나 복도, ② 학교 내 한적하거나 후미진 곳, ③ 학교 근처 골목길, 야산 등, ④ 학교근처 학원, 독서실, PC방, ⑤ 기타

\* 01 : 2001년 조사 / 02 : 2002년 조사

전체를 살펴보면, ‘교실 안이나 복도’가 3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학교 근처 학원, 독서실, PC방’이 20.3%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는데, 2001년과 순위 면에서는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 ‘학교 안’과 ‘학교 밖’으로 재분류하면, ‘학교 안’이 44.4%, ‘기타’를 ‘학교 밖’으로 간주했을 경우 ‘학교 밖’이 55.6%로, 앞의 ‘피해를 당한 당시의 시간’에 대한 항목에서 ‘학교 일정 외의 시간’이 58.4%이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특기할 만한 것은 ‘학교 안’의 경우, ‘학교 내 한적하거나 후미진 곳’보다는 ‘교실 안이나 복도’에서의 피해 경험자가 거의 세 배나 많다는 것으로 그 차이가 2001년 거의 두 배였던 것에 비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밖’의 경우 ‘골목길이나 야산 등’과 같이 인적이 드문 곳보다는 ‘학원이나 독서실, pc방 등’과 같이 사람이 많은 곳에서 피해 경험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 안’이나 ‘학교 밖’ 모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폭력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학생들의 폭력 피해는 모르는 사람이나 외부의 사람보다는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준다.

## (2) 피해 사실보고 및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

<표 7>은 피해를 당한 후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였는가? 라는 질문에 학생들이 응답한 것을 요약한 표이다.

&lt;표 7&gt; 피해 후 피해 사실 알린 대상

단위 : %

|          | 초등학교 |      |      |      | 중학교  |      |      |      | 고등학교 |      |      |      | 전체   |      |
|----------|------|------|------|------|------|------|------|------|------|------|------|------|------|------|
|          | 남자   |      | 여자   |      | 남자   |      | 여자   |      | 남자   |      | 여자   |      |      |      |
| 연도<br>대상 | 01   | 02   | 01   | 02   | 01   | 02   | 01   | 02   | 01   | 02   | 01   | 02   | 01   | 02   |
| ①        | 41.4 | 39.3 | 31.7 | 31.0 | 25.4 | 25.5 | 19.4 | 23.0 | 12.0 | 9.4  | 16.7 | 20.8 | 27.7 | 28.5 |
| ②        | 24.2 | 22.7 | 29.3 | 34.0 | 32.2 | 26.4 | 47.2 | 44.2 | 42.0 | 39.1 | 54.2 | 54.2 | 33.9 | 30.9 |
| ③        | 5.1  | 7.9  | 14.6 | 5.0  | 5.9  | 4.5  | 6.5  | 5.3  | 2.0  | 1.6  | 8.3  | 8.3  | 6.7  | 5.3  |
| ④        | 1.3  | 0.4  | 1.2  | 1.0  | 1.7  | 5.5  | 0.9  | 0    | 0    | 6.3  | 0    | 0    | 1.2  | 2.4  |
| ⑤        | 0    | 0    | 0    | 0    | 0    | 0    | 0    | 0.9  | 0    | 0    | 0    | 0    | 0    | 0.1  |
| ⑥        | 2.5  | 3.1  | 1.2  | 2.0  | 1.3  | 3.2  | 0.9  | 3.5  | 0    | 4.7  | 0    | 4.2  | 1.4  | 3.2  |
| ⑦        | 25.5 | 27.5 | 22.0 | 27.0 | 33.5 | 35.0 | 25.0 | 23.0 | 44.0 | 39.1 | 20.8 | 12.5 | 29.1 | 29.5 |
| 유효합계     | 100  |      |      |      |      |      |      |      |      |      |      |      |      |      |

\* 피해 후 사실보고 대상 : ① 가족(부모, 형제 등), ② 친구, ③ 교사, ④ 신고전화(경찰, 검찰 등), ⑤ 청소년상담센터 등 상담기관, ⑥ 기타, ⑦ 알리지 않음

\* 01 : 2001년 조사 / 02 : 2002년 조사

전체를 보면, ‘친구’에게 말한 경우가 3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음’이 29.5%, ‘부모 혹은 가족’에게 말한 경우가 28.5%로 각각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청소년 상담 센터 등과 같은 상담 기관’에는 전혀 거의 알리지 않았고(0.1%), ‘신고전화’ 이용율도 2.4%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교사’에게 알린 경우도 5.3%밖에 되지 않았다. 2001년도와 비교해 보면, 순위 면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신고전화’ 이용율이 1.2%에서 2.4%로 두 배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비율 면에서는 미미하지만, 학생들이 ‘신고전화’의 존재 여부를 점점

더 인식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별로 보면, 초등학생은 남녀 모두 '부모나 가족'에게 말한 경우가 각각 39.3%, 31.0%로 가장 높게 나타나, 초등학생의 경우는 아직 또래집단 보다는 부모에게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더 많이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성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남학생은 '아무에게 알리지 않음'이 35.0%로 가장 높은데 비해 여학생은 '친구'에게 말한 경우가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들이 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여학생들보다 더 감추고 싶어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남자들이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맞느니 차라리 때리는 게 더 남성답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됨으로서 생긴 결과라 할 수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은 '친구에게 말하는 경우'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음' 모두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친구에게 말하는 경우'가 5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1년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는 부분은 남자 고등학생으로 2001년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음'이 44%로 '친구에게 말한 경우'의 42%보다 더 많았다. 하지만 그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아, 연도별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 다. 지역별 물리적 신체적 폭력의 피해율 비교

조사가 이루어진 지역을 서울, 광역시, 그리고 중·소 도시로 나누어서 학교별 물리적 폭력 피해율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먼저 전체별로 보면, 서울이 2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소 도시가 21.2%, 그리고 마지막으



로 광역시가 15.0%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이는 2001년과 같은 순위로 서울이 다른 지역에 비해 물리적 폭력 피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서울과 중소도시와의 피해율 차이가 2001년 5.1%에서 2002년 0.9%로 줄어들어 별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는 중소도시 학생들도 인터넷이나 영상매체를 통해 서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폭력물들을 언제든지 접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하나 특이한 점은 중소도시에 비해 서울과 좀더 비슷한 생활환경을 지니고 있는 광역시가 오히려 폭력 피해율에서 가장 적으며, 2001년에는 그 차이가 1%이었으나, 2002년에는 6.2%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학교별로 보면, 초등학생은 서울과 중소도시가 각각 27.7%, 27.8%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중학생은 서울이 28.3%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생은 중소도시가 9.3%로 가장 높았다.

<표 8> 물리적 폭력 피해율

| 년도    | 초등학생  |       | 중학생   |       | 고등학생 |      | 전체    |       |
|-------|-------|-------|-------|-------|------|------|-------|-------|
|       | 2001  | 2002  | 2001  | 2002  | 2001 | 2002 | 2001  | 2002  |
| 서울    | 27.2% | 27.7% | 28.8% | 28.3% | 8.1% | 8.7% | 22.5% | 22.1% |
| 광역시   | 24.2% | 22.0% | 18.6% | 14.8% | 5.9% | 8.6% | 16.4% | 15.0% |
| 중·소도시 | 16.8% | 27.8% | 23.3% | 21.5% | 8.8% | 9.3% | 17.4% | 21.2% |

## 2. 괴롭힘(강제 심부름 놀림 따돌림) 피해 경험

### 가. 피해를

본고에서는 ‘괴롭힘 피해’를 (1) 강제 심부름, (2) 놀림, (3) 따돌림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이러한 종류의 피해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 설문지에서는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 질문을 하였다.

#### (1) 강제 심부름

<표 9>는 남녀별, 초·중·고교별로 강제 심부름 피해를 나타낸 표이다. 이 표에서는 전체 학생 중 9.0%가 그러한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1년 9.7%에 비해 약간 줄어든었다. 남학생의 피해율이 12.0%, 여학생의 피해율이 5.8%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 초등학교 학생 피해율은 11.7%, 중학생은 9.1%, 고등학생은 5.2%로 2001년(중학생이 가장 높게 나옴)과는 달리 초등학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02년에는 초등학교 남학생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2001년의 중학교 남학생의 가장 높은 비율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9> 강제 심부름 피해율

| 년도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합계    |       |
|----|-------|-------|-------|-------|------|------|-------|-------|
|    | 2001  | 2002  | 2001  | 2002  | 2001 | 2002 | 2001  | 2002  |
| 남자 | 12.7% | 15.5% | 15.3% | 13.0% | 7.7% | 6.7% | 12.4% | 12.0% |
| 여자 | 10.2% | 7.6%  | 7.9%  | 5.7%  | 1.8% | 3.3% | 7.1%  | 5.8%  |
| 합계 | 11.4% | 11.7% | 11.6% | 9.1%  | 4.8% | 5.2% | 9.7%  | 9.0%  |

## (2) 놀 림

놀림 피해는 <표 10>에서 그 비율이 전체 10.2%로 2001년 9.4%에 비하면 약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피해 유형에서는 남학생 비율이 11.1%, 여학생 비율이 9.2%로 남학생의 비율이 여학생의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001년 남학생이 11.5%, 여학생이 7.3%와 비교해보면, 남학생은 약간 줄어들고, 여학생은 좀더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초·중·고교별 피해율을 보면, 초등학교가 14.0%, 중학생이 10.0%, 고등학생이 5.1%로 초등학교생들의 피해가 가장 높다. 하위 집단 중에서 가장 피해율이 높은 집단은 남자 초등학교생으로 그 피해율은 15.4%에 달한다. 2001년도에 비하면, 초등학교생만 그 피해율이 증가했다.

<표 10> 놀림 피해율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합계    |       |
|----|-------|-------|-------|-------|------|------|-------|-------|
|    | 2001  | 2002  | 2001  | 2002  | 2001 | 2002 | 2001  | 2002  |
| 남자 | 12.1% | 15.4% | 14.2% | 11.4% | 6.5% | 5.7% | 11.5% | 11.1% |
| 여자 | 12.1% | 13.1% | 6.1%  | 8.7%  | 3.0% | 4.4% | 7.3%  | 9.2%  |
| 합계 | 12.1% | 14.0% | 10.1% | 10.0% | 4.8% | 5.1% | 9.4%  | 10.2% |

## (3) 따돌림

따돌림 피해는 <표 11>에서 그 비율이 전체 3.3%로, 2001년 2.8%에 비하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피해 유형에서는 남학생 피해율이 3.7%, 여학생 피해율이 2.8%로 남학생의 피해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001년에는 남학생 피

해율이 2.1%, 여학생 피해율이 3.5%로 오히려 여학생 피해율이 더 높게 나타났었다. 초·중·고교별 피해율을 보면, 초등학교가 5.9%, 중학교가 2.8%, 고등학교가 0.5%로 초등학교의 피해율이 가장 높다. 하위 집단 중에서는 남자 초등학교가 6.7%로 피해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1년과 비교해보면, 초등학교는 4.7%에서 5.9%로 증가했고, 중학교도 2.1%에서 2.8%로 증가했으나, 고등학교만 1.3%에서 0.5%로 감소했다. 또한 2001년도 전체 남녀 피해에서 여학생의 비율이 높았던 것을 반영하듯, 하위 집단 중에서 여자 초등학교가 가장 높은 피해율을 보인 것과 달리, 2002년도에는 남학생의 비율이 증가한 것을 반영한 듯이 남자 초등학교가 하위 집단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따돌림 피해율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합계   |      |
|----|------|------|------|------|------|------|------|------|
|    | 2001 | 2002 | 2001 | 2002 | 2001 | 2002 | 2001 | 2002 |
| 남자 | 3.5% | 6.7% | 1.5% | 3.3% | 1.1% | 0.5% | 2.1% | 3.7% |
| 여자 | 5.8% | 5.0% | 2.8% | 2.3% | 1.5% | 0.5% | 3.5% | 2.8% |
| 합계 | 4.7% | 5.9% | 2.1% | 2.8% | 1.3% | 0.5% | 2.8% | 3.3% |

## 나. 피해 당시 상황

### (1) 피해 사실 알린 대상

<표 12>는 괴롭힘 피해를 당한 후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였는가? 라는 질문에 학생들이 응답한 것을 요약한 것이다. 전체의 경우를 보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음'이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부모 혹은 가족'에게 알린 경우가 29.1%,

‘친구’에게 말한 경우가 24.6%로 각각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청소년 상담센터 등과 같은 상담기관’에 알린 경우는 0.2%, ‘신고전화’ 이용률은 0.5%에 지나지 않았다. ‘교사’에게 알린 경우도 4.6% 밖에 되지 않았다.

<표 12> 괴롭힘 피해 후 피해 사실 알린 대상

단위 : %

| 연도<br>대상 | 초등학생 |      |      |      | 중학생  |      |      |      | 고등학생 |      |      |      | 전체   |      |
|----------|------|------|------|------|------|------|------|------|------|------|------|------|------|------|
|          | 남자   |      | 여자   |      | 남자   |      | 여자   |      | 남자   |      | 여자   |      | 전체   |      |
|          | 01   | 02   | 01   | 02   | 01   | 02   | 01   | 02   | 01   | 02   | 01   | 02   | 01   | 02   |
| ①        | 37.1 | 41.2 | 38.4 | 41.1 | 13.7 | 17.9 | 14.1 | 22.2 | 2.3  | 12.1 | 12.5 | 12.5 | 23.2 | 29.1 |
| ②        | 13.7 | 18.1 | 22.3 | 25.0 | 30.4 | 20.1 | 36.5 | 40.4 | 15.9 | 24.1 | 37.5 | 33.3 | 24.9 | 24.6 |
| ③        | 5.6  | 6.0  | 5.4  | 6.3  | 3.1  | 2.2  | 4.7  | 5.1  | 2.3  | 1.7  | 6.3  | 4.2  | 4.4  | 4.6  |
| ④        | 0.8  | 1.1  | 0    | 0    | 0    | 0.7  | 0    | 0    | 2.3  | 0    | 0    | 0    | 0.4  | 0.5  |
| ⑤        | 0    | 0    | 0    | 0    | 1.9  | 0.7  | 0    | 0    | 0    | 0    | 0    | 0    | 0.6  | 0.2  |
| ⑥        | 1.6  | 1.1  | 0    | 0    | 1.9  | 3.0  | 0    | 2.0  | 2.3  | 3.4  | 0    | 4.2  | 1.1  | 1.8  |
| ⑦        | 41.1 | 32.4 | 33.9 | 27.7 | 49.1 | 55.2 | 44.7 | 30.3 | 75.0 | 58.6 | 43.8 | 45.8 | 45.4 | 39.2 |
| 유효합계     | 100  |      |      |      |      |      |      |      |      |      |      |      |      |      |

\* 피해 후 사실 보고 대상 : ① 가족(부모, 형제 등), ② 친구, ③ 교사, ④ 신고전화(경찰, 검찰 등), ⑤ 청소년상담센터 등 상담기관, ⑥ 기타, ⑦ 알리지 않음

\* 01 : 2001년 조사 / 02 : 2002년 조사

학교별로 살펴보면, 먼저 초등학생은 남녀 모두 ‘가족’에게 알리는 경우가 각각 41.2%,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초등학생일수록 가족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학생은 남학생의 경우 ‘알리지 않음’이 55.2%로 가장 높았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친구’가 40.4%로 가장 높았는데, 남학생은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알리려고 하지 않으며, 여학생

은 또래집단인 친구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남자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남녀 모두 '알리지 않음'이 각각 58.6%, 45.8%로 가장 높게 나와, 초등학생과 좋은 대조를 보여 주고 있다.

#### 다. 지역별 괴롭힘 피해율 비교

조사가 이루어진 지역을 서울, 광역시, 그리고 중소 도시로 나누어서 괴롭힘 피해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별로 보면, 중·소 도시의 경우 18.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서울이 15.0%, 그리고 광역시가 14.7%로 나타났다. 2001년도에는 서울이 17.9%로 가장 높고, 중소 도시가 16.7%로 그 다음이었으나, 2002년도에는 그 순위가 바뀌었다.

초·중·고교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중소 도시가 2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울과 광역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도 중소 도시가 18.5%로 가장 높았으나, 고등학생만 광역시가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1년도와 비교를 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광역시가 2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소 도시가 18.0%로 가장 낮게 나온 것과 달리, 2002년에는 중소 도시가 24.0%로 가장 높아져서, 중소 도시의 초등학생 피해율이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2001년 2002년 모두 중소 도시가 가장 높은 피해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001년에는 중소 도시가, 2002년에는 광역시가 가장 높은 피해율을 보이고 있어, 광역시의 피해율이 2001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lt;표 13&gt; 괴롭힘 피해율

| 년도    | 초등학생  |       | 중학생   |       | 고등학생  |       | 전체    |       |
|-------|-------|-------|-------|-------|-------|-------|-------|-------|
|       | 2001  | 2002  | 2001  | 2002  | 2001  | 2002  | 2001  | 2002  |
| 서울    | 23.9% | 22.4% | 17.3% | 15.1% | 10.0% | 7.7%  | 17.9% | 15.0% |
| 광역시   | 25.1% | 22.6% | 16.4% | 13.1% | 4.5%  | 10.0% | 15.5% | 14.7% |
| 중·소도시 | 18.0% | 24.0% | 19.4% | 18.5% | 10.3% | 9.4%  | 16.7% | 18.6% |

### 3. 사이버 폭력(휴대폰 폭력) 피해 경험

#### 가. 피해율

‘사이버(cyber) 폭력 피해’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 설문지에서는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 질문을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아이디(ID) 도용, 게시판 폭력, 게임 관련 폭행, 휴대폰 폭력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 (1) 아이디(ID) 도용

아이디 도용 피해는 전체 학생 중 20.8%가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피해율이 높았다. 그러나 2001년 21.2%에 비하면, 조금 감소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14>는 남녀별, 초·중·고교별로 아이디(ID) 도용 피해율을 나타낸 표이다. 남학생의 피해율은 22.6%, 여학생은 18.9%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약간 더 많은 피해를 입었고, 초등학교 학생 피해율은 24.4%, 중학생은 22.4%, 고등학생 13.4%로 초등학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01년과 비교를 해보면, 초등학생은 20.0%에서 24.4%로 증가했으나, 중학생은 24.9%에서 22.4%로

감소했으며, 고등학생도 16.9%에서 13.4%로 감소했다. 이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초등학교 폭력 피해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위 집단 중 가장 높은 피해율을 보인 집단도 2001년에는 남자 중학생(25.8%)이었으나, 2002년에는 남자 초등학교 학생(27.6%)으로 나타났다.

<표 14> 아이디(ID) 도용 피해율

| 년도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합계    |       |
|----|-------|-------|-------|-------|-------|-------|-------|-------|
|    | 2001  | 2002  | 2001  | 2002  | 2001  | 2002  | 2001  | 2002  |
| 남자 | 22.3% | 27.6% | 25.8% | 25.3% | 19.6% | 12.8% | 23.0% | 22.6% |
| 여자 | 17.7% | 20.8% | 23.9% | 19.8% | 14.2% | 14.2% | 19.3% | 18.9% |
| 합계 | 20.0% | 24.4% | 24.9% | 22.4% | 16.9% | 13.4% | 21.2% | 20.8% |

## (2) 인터넷 게시판 폭력

<표 15>에서 인터넷 게시판 폭력 피해는 전체 학생 중 5.9%가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1년의 7.4%에 비해 감소했다. 남녀별로 볼 때, 남학생의 피해율이 5.8%, 여학생의 피해율이 6.0%로 나타나, 성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초·중·고교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학생 피해율은 7.8%, 중학생은 6.1%, 고등학생은 3.0%로 초등학교 학생 피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01년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초등학교 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 에티켓에 대한 인식이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 갈수록 일반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lt;표 15&gt; 인터넷 게시판 모욕 욕설 피해율

| 년도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합계   |      |
|----|------|------|------|------|------|------|------|------|
|    | 2001 | 2002 | 2001 | 2002 | 2001 | 2002 | 2001 | 2002 |
| 남자 | 7.5% | 8.2% | 7.2% | 5.9% | 6.9% | 2.7% | 7.2% | 5.8% |
| 여자 | 8.8% | 7.4% | 8.7% | 6.3% | 4.0% | 3.5% | 7.5% | 6.0% |
| 합계 | 8.2% | 7.8% | 7.9% | 6.1% | 5.5% | 3.0% | 7.4% | 5.9% |

## (3) 인터넷 게임 관련 폭행

<표 16>은 남녀별, 초·중·고교별로 인터넷 게임 관련 폭행 피해율을 나타낸 표이다. 인터넷 게임 관련 폭행 피해에서는 전체 학생 중 2.5%가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1년도 2.8%에 비하면 약간의 감소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남학생의 피해율은 3.8%, 여학생은 1.1%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거의 세 배 정도 피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1년도와 비교해 보면, 남학생은 4.7%에서 3.8%로 피해율이 감소했으나, 여학생은 1.0%에서 1.1%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초등학생 피해율은 4.1%, 중학생은 2.0%, 고등학생은 1.3%로 초등학생 피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01년도 피해율과 비교해 보면, 초등학생은 3.6%에서 4.1%로 증가한 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각각 2.9%에서 2.0%, 그리고 1.8%에서 1.3%로 감소했다. 이는 여자 초등학생의 피해율이 1.7%에서 2.3%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위 집단별로 볼 때, 최고치는 2001년 2002년 모두 남자 초등학생으로 그 비율은 각각 5.5%, 5.7%이다.

&lt;표 16&gt; 인터넷 게임 관련 폭행 피해율

| 년도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합계   |      |
|----|------|------|------|------|------|------|------|------|
|    | 2001 | 2002 | 2001 | 2002 | 2001 | 2002 | 2001 | 2002 |
| 남자 | 5.5% | 5.7% | 5.0% | 3.8% | 3.3% | 1.7% | 4.7% | 3.8% |
| 여자 | 1.7% | 2.3% | 0.9% | 0.3% | 0.2% | 0.9% | 1.0% | 1.1% |
| 합계 | 3.6% | 4.1% | 2.9% | 2.0% | 1.8% | 1.3% | 2.8% | 2.5% |

## (4) 휴대폰 폭력

<표 17>은 남녀별, 초·중·고교별로 휴대폰 폭력 피해(휴대폰 음성 혹은 문자를 통해 모욕이나 욕설을 경험한 피해)율을 나타낸 표이다.

휴대폰 음성 혹은 문자를 통해 모욕이나 욕설을 들은 적이 있는 학생들의 비율은 전체 학생중 5.9%로 나타나, 2001년 5.5%에 비해 약간 증가했다. 남녀별로 보면, 남학생의 비율은 4.4%, 여학생은 7.5%로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피해율에 있어서 거의 두 배 가까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2001년에도 같았는데, 이는 아마도 여학생의 휴대폰 사용 빈도가 남학생들보다 높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초·중·고교별로 보면, 초등학교 학생 피해율은 4.1%, 중학생은 7.2%, 고등학생은 6.3%로 중학생의 피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를 2001년과 비교해보면 초등학생은 2.6%에서 4.1%로, 중학생은 5.5%에서 7.2%로 둘 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고등학생만 9.2%에서 6.3%로 감소했다. 이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휴대폰 사용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추정하게 해준다. 하위 집단 별로 보았을 때는 2001년에는 여자 고등학생이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02년에는 여자 중학생이 9.0%로 최고

치를 나타내, 고등학생 피해율의 감소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17> 휴대폰 음성 문자 욕설 피해율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합계   |      |
|----|------|------|------|------|-------|------|------|------|
|    | 2001 | 2002 | 2001 | 2002 | 2001  | 2002 | 2001 | 2002 |
| 남자 | 2.0% | 3.5% | 2.9% | 5.1% | 8.3%  | 4.5% | 4.0% | 4.4% |
| 여자 | 3.1% | 4.8% | 8.2% | 9.0% | 10.2% | 8.5% | 7.0% | 7.5% |
| 합계 | 2.6% | 4.1% | 5.5% | 7.2% | 9.2%  | 6.3% | 5.5% | 5.9% |

## 나. 피해 당시 상황

### (1) 피해 사실보고 및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

<표 18>은 사이버 폭력 피해를 당한 후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였는가? 라는 질문에 학생들이 응답한 것을 요약한 표이다. 친구'에게 말한 경우가 4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아무에게 말하지 않았다'가 28.4%, '부모 혹은 가족'에게 말한 경우가 16.7%로 각각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이는 2001년과 비슷한 경향으로, 사이버 상의 폭력이 주로 '모르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에 따른 피해도 다른 피해보다는 친구에게 말하는 경우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신고전화' 이용률은 7.0%로 친구에게 말하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보다는 훨씬 작지만, '괴롭힘'이나 '물리적 폭력'에 비해서는 그 비율이 높은 편이다.

&lt;표 18&gt; 피해 후 피해 사실 알린 대상

단위 : %

| 연도<br>대상 | 초등학생 |      |      |      | 중학생  |      |      |      | 고등학생 |      |      |      | 전체   |      |
|----------|------|------|------|------|------|------|------|------|------|------|------|------|------|------|
|          | 남자   |      | 여자   |      | 남자   |      | 여자   |      | 남자   |      | 여자   |      |      |      |
|          | 01   | 02   | 01   | 02   | 01   | 02   | 01   | 02   | 01   | 02   | 01   | 02   | 01   | 02   |
| ①        | 21.9 | 24.3 | 22.9 | 30.0 | 9.7  | 11.3 | 8.0  | 15.6 | 0.7  | 3.1  | 5.9  | 8.1  | 11.9 | 16.7 |
| ②        | 32.0 | 46.0 | 35.0 | 41.9 | 44.5 | 32.5 | 53.1 | 55.0 | 35.8 | 41.9 | 39.7 | 50.0 | 41.2 | 44.0 |
| ③        | 4.5  | 2.2  | 2.1  | 1.3  | 0.8  | 0.4  | 0.5  | 0.5  | 0.7  | 1.6  | 0    | 0    | 1.5  | 1.1  |
| ④        | 3.9  | 4.9  | 2.9  | 8.8  | 2.8  | 7.8  | 7.0  | 5.0  | 5.1  | 10.9 | 8.8  | 6.8  | 4.7  | 7.0  |
| ⑤        | 0    | 0.4  | 0.7  | 0    | 1.6  | 0.4  | 1.4  | 0.5  | 0    | 0    | 0    | 0    | 0.8  | 0.3  |
| ⑥        | 2.2  | 0.4  | 2.1  | 3.8  | 4.0  | 4.8  | 4.2  | 0.9  | 5.1  | 2.3  | 2.9  | 4.1  | 3.6  | 2.5  |
| ⑦        | 35.4 | 21.7 | 34.3 | 14.4 | 36.4 | 42.9 | 25.8 | 22.5 | 52.6 | 40.3 | 42.6 | 31.1 | 36.3 | 28.4 |
| 유효합계     | 100  |      |      |      |      |      |      |      |      |      |      |      |      |      |

\* 피해 후 사실 보고 대상 : ① 가족(부모, 형제 등), ② 친구, ③ 교사, ④ 신고전화(경찰, 검찰 등), ⑤ 청소년상담센터 등 상담기관, ⑥ 기타, ⑦ 알리지 않음

\* 01 : 2001년 조사 / 02 : 2002년 조사

학교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남녀 모두 '친구'에게 말하는 경우가 각각 46.0%,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생의 경우 남학생은 '알리지 않음'이 42.9%로 가장 높았고, 여학생은 '친구'에게 말한 경우가 55.0%로 가장 높았다. 일반적으로 단정 짓기는 힘들지만, 이제까지 물리적 폭력이나, 따돌림, 사이버 상의 폭력에서 피해를 당한 후 피해를 알린 대상에 대한 조사에서, 유독 남자 중학생은 거의 '아무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는 점을 보면, 이들 집단은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많이 숨기려 하거나, 아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사회화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남녀 모두 '친구'에게 말한 경우가 각

각 41.9%,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2001년도에는 남녀 모두 '아무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가 각각 52.6%, 42.6%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 다. 지역별 사이버 폭력 피해율 비교

사이버 폭력 피해율을 서울, 광역시, 중소 도시 지역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 비율을 살펴보면, 광역시가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지역인 서울과 중·소 도시와의 차이가 거의 없는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인터넷의 이용률 수준이 비슷하게 되어 있어 지역 간 차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초·중·고교별로 살펴보면, 2001년에는 초·중·고등학생 모두 서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02년에는 초등학생의 경우 광역시가 37.4%로 상대적으로 높고, 중학생도 광역시가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고등학생은 서울이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지역간 인터넷 인프라 격차가 사라진 것으로, 2001년 전체 피해율에서는 서울과 광역시 그리고 중소 도시 간에 차이가 있었으나, 2002년 전체 피해율에서는 격차가 거의 없어진 것을 통해 추정된다.

<표 19> 사이버 폭력 피해 지역별 비교

| 년도    | 초등학생  |       | 중학생   |       | 고등학생  |       | 전체    |       |
|-------|-------|-------|-------|-------|-------|-------|-------|-------|
|       | 2001  | 2002  | 2001  | 2002  | 2001  | 2002  | 2001  | 2002  |
| 서울    | 29.8% | 30.0% | 37.0% | 34.6% | 34.7% | 24.8% | 33.6% | 30.3% |
| 광역시   | 27.8% | 37.4% | 34.9% | 34.8% | 22.0% | 22.2% | 29.8% | 32.1% |
| 중·소도시 | 26.3% | 33.9% | 35.1% | 30.4% | 27.9% | 24.5% | 30.2% | 30.4% |

## 4. 성폭력 피해 경험

### 가. 피해를

성폭력피해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가벼운 성추행과 심각한 성추행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 (1) 가벼운 성추행

<표 20> 가벼운 성추행 피해율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합계   |      |
|----|------|------|------|------|------|------|------|------|
|    | 2001 | 2002 | 2001 | 2002 | 2001 | 2002 | 2001 | 2002 |
| 비율 | 4.2% | 2.9% | 9.3% | 7.8% | 5.6% | 6.4% | 6.6% | 5.7% |

<표 20>에서 볼 수 있듯, 초·중·고교의 여학생들에 대한 가벼운 성추행 피해율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 2001년도와 비교해보면, 고등학생만이 0.8%가량 늘었고 초등학생의 경우는 4.2%에서 2.9%로, 중학생의 경우는 9.3%에서 7.8%로 피해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 나타났다.

#### (2) 심각한 성폭력 피해를

<표 21>의 심각한 성폭력 피해율의 경우에도 가벼운 성추행 피해율과 마찬가지로, 2001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감소한 양상을 띠고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는 전년대비 약 0.3% 감소하였고, 중학생의 경우 역시 0.5%가량이 줄었으며, 고등학생은

무려 1.1%나 줄어들었다. 이는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성폭력관련 피해사례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처럼 심각한 성폭력의 피해율보다 오히려 가벼운 성추행의 피해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여고생들의 성폭행에 관한 인지도 혹은 경각심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표 21> 심각한 성폭력 피해율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합계   |      |
|----|------|------|------|------|------|------|------|------|
|    | 2001 | 2002 | 2001 | 2002 | 2001 | 2002 | 2001 | 2002 |
| 비율 | 0.9% | 0.6% | 2.4% | 1.9% | 1.8% | 0.7% | 1.8% | 1.1% |

## 나. 피해 당시 상황

### (1) 주된 가해자 및 피해 시간과 장소

성폭력의 피해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가벼운 성추행과 심각한 성폭행 피해 경험이 있었다고 답변한 여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피해를 입힌 사람의 정체와 가해자 수를 물어보았다.

<표 22>에서 보이듯,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에 의한 가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같은 학교 같은 학년 1명에 의한 가해의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양상은 2001년의 경우와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같은 학교 같은 학년 1명에 의한 가해가 2001년 18.5%에서 2002년 현재 42.9%로 급증했으며, 반면에 모르는 사람에 의한 가해는 2001년 40.7%에서 2002년 현재 28.6%로 크게 줄었다. 이는 성에대한 호기심은 큰 반면 도덕적인 윤리

의식은 미성숙한 상태의 초등학교 남학생들이 주로 같은 학교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가해를 저지르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표 22> 피해를 입힌 사람

|                   | 초등학생 여자 |       | 중학생 여자 |       | 고등학생 여자 |       | 합계    |       |
|-------------------|---------|-------|--------|-------|---------|-------|-------|-------|
|                   | 2001    | 2002  | 2001   | 2002  | 2001    | 2002  | 2001  | 2002  |
| ①같은 학교 같은 학년1명    | 18.5%   | 42.9% | 24.3%  | 21.5% | 14.8%   | 15.4% | 19.2% | 26.0% |
| ②같은 학교 같은 학년 여러 명 | 14.8%   | 9.5%  | 7.1%   | 7.7%  | 7.4%    | 3.8%  | 9.8%  | 7.0%  |
| ③같은 학교 선배 1명      | 0%      | 0%    | 2.9%   | 3.1%  | 0%      | 0%    | 1.0%  | 1.0%  |
| ④같은 학교 선배 여러 명    | 0%      | 0%    | 0%     | 1.5%  | 0%      | 0%    | 0%    | 0.5%  |
| ⑤같은 학교 졸업생        | 0%      | 4.8%  | 0%     | 1.5%  | 3.7%    | 0%    | 1.2%  | 2.1%  |
| ⑥중퇴생              | 0%      | 0%    | 0%     | 0%    | 0%      | 0%    | 0%    | 0%    |
| ⑦다른 학교 학생         | 0%      | 0%    | 12.9%  | 9.2%  | 18.5%   | 7.7%  | 10.5% | 5.0%  |
| ⑧모르는 사람           | 40.7%   | 28.0% | 47.1%  | 44.0% | 48.1%   | 57.7% | 45.3% | 43.0% |
| ⑨기타               | 25.9%   | 14.3% | 5.7%   | 10.8% | 7.4%    | 15.4% | 13.0% | 13.5% |
| 유효합계              | 99.9%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99.9% |

<표 23>은 성폭력의 피해를 당할 당시의 시간에 대한 응답이다. 전체적으로 방과 후와 일요일·휴일에 피해를 당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001년에 등교 전이 높았던 반면 2002년에는 방과 후가 5%나 증가하였고, 2001년에는 0% 이었던 수업시간의 경우도 11.5%라는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가벼운 성추행의 경우와 유사하여 수업시간에 알게 모르게 당했었던 부분들에 대해 1년 사이에 인지 혹은 경각심을 갖게 된 것이다.





초등학생의 경우는 모든 전체의 평균과는 다르게, 쉬는 시간과 기타 그리고 수업시간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이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의 경우보다 비교적 가벼운 성추행에 가까운 유형의 성폭력이 발생하며, 학교 내에서의 시간뿐만 아니라 학교 외에서도 상당히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표 24>에서는 성폭력의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당했던 장소를 질문해 본 것이다. 전체적으로 2001년과 2002년의 결과가 비슷하며, 설문지 문항에 없는 기타의 장소가 가장 많았으며 교실 안이나 복도 그리고 학교근처의 골목길, 야산 등 외 장소와 학교 근처 학원, 독서실, PC방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타의 장소로는 주로 부모님이 부재중인 집 안이나 유흥지, 공원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 같은 장소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는 그 가해자가 사귀고 있는 이성친구일 수도 있고, 또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교실 안이나 복도에서 당한 경우에는 그 가해자가 같은 학교의 동급생이었을 가능성이, 학교근처의 골목길이나 야산 등에서 당한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에 의한 가해였을 가능성이 크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 비교적 학교근처 학원, 독서실, PC방에서 피해를 많이 입는 반면, 초등학생의 경우는 주로 교실 안이나 복도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는 중·고등학생에 비해 학원과 독서실 등의 학교 외의 장소에 머무는 시간이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 (2) 피해 사실보고 및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

<표 25>는 성폭력의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피해를 당한 후,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까?란 질문에 대한 답이 조사된 것이다. 전체적으로 피해자들은 성폭력을 당한 경험을 친구에게만 도움을 청할 뿐, 가족이나 교사에게 털어놓기 보다는 차라리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2001년도와 비교해보면, 45.8%에서 56.2%로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사례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lt;표 25&gt; (성폭력의 경우) 피해 후 피해 사실 알린 대상

|                  | 초등학생 여자 |       | 중학생 여자 |       | 고등학생 여자 |       | 합계    |       |
|------------------|---------|-------|--------|-------|---------|-------|-------|-------|
|                  | 2001    | 2002  | 2001   | 2002  | 2001    | 2002  | 2001  | 2002  |
| ① 가족(부모, 형제 등)   | 42.3%   | 22.2% | 8.8%   | 11.5% | 3.8%    | 11.5% | 15.0% | 13.3% |
| ② 친구             | 19.2%   | 33.3% | 51.5%  | 60.7% | 57.7%   | 61.5% | 45.8% | 56.2% |
| ③ 교사             | 0%      | 16.7% | 0%     | 3.3%  | 0%      | 0%    | 0%    | 4.8%  |
| ④ 신고전화(경찰, 검찰 등) | 0%      | 0%    | 0%     | 1.6%  | 3.8%    | 0%    | 0.8%  | 1.0%  |
| ⑤ 청소년상담센터 등 상담기관 | 0%      | 0%    | 0%     | 0%    | 0%      | 0%    | 0%    | 0%    |
| ⑥ 기타             | 0%      | 0%    | 1.5%   | 3.3%  | 0%      | 0%    | 0.8%  | 1.9%  |
| ⑦ 알리지 않음         | 38.5%   | 27.8% | 38.2%  | 19.7% | 34.6%   | 26.9% | 37.5% | 22.9% |
| 유효합계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또 학교 별로 비교해보면, 고등학생과 중학생은 각각 61.5%, 60.7%로 친구에게 털어놓는 경우가 많았으나 초등학생의 경우는 단지 33.3%만이 친구에게 이야기하였고, 가족(22.2%)이나 교사(16.7%)에게도 비교적 상당히 높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아직 상대적으로 심신이 어린 초등학생들의 가족이나 교사에 대한 의존성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001년에 비해 2002년 현재, 교사나 신고전화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0%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에 관한 교육효과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 다. 지역별 성폭력 피해율 비교

<표 26> 지역별 피해율

|       | 초등학생 여자 |      | 중학생 여자 |       | 고등학생 여자 |       | 합계   |      |
|-------|---------|------|--------|-------|---------|-------|------|------|
|       | 2001    | 2002 | 2001   | 2002  | 2001    | 2002  | 2001 | 2002 |
| 서울    | 7.2%    | 1.6% | 8.2%   | 14.0% | 7.1%    | 6.2%  | 7.4% | 6.8% |
| 광역시   | 1.7%    | 3.4% | 10.4%  | 9.7%  | 7.0%    | 13.2% | 7.9% | 8.8% |
| 중·소도시 | 3.4%    | 3.6% | 8.9%   | 4.8%  | 5.2%    | 4.3%  | 6.0% | 4.2% |

<표 26>은 지역별로 성폭력 피해율을 비교해 본 것이다. 지역은 크게 서울과 광역도시 그리고 중·소도시 이렇게 세 단위로 나누었다. 이 표는 서울의 경우는 2001년에 비해 2002년에는 초등학생의 피해율이 낮아지고 있으나, 광역시를 비롯한 중·소도시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중학생의 경우는 반대로 나타났다. 즉, 서울에서는 8.2%에서 14.0%로 증가한 반면에 다른 도시에서는 조금 혹은 반 정도로 감소했다. 그리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광역도시에서만 유독 전년 대비 6.2% 정도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지역별로 성폭력 피해율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역별 경제적인 수준이나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성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즉 지역별로 경제적인 수준과 그에 바탕 한 부모의 교육열의

의 차이가 존재하며, 그것은 초등학교 교육에서 가장 큰 차이를 내보이는 요소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조사에서 집계되었듯이, 교육적 열의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에서는 성폭력 피해율이 오히려 다른 도시들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이다.

## V. 결 론

2002년의 결과를 2001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전체적인 피해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지 초등학교의 피해율이 높게 나타난 유형이 많아서, 비행의 피해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학교 폭력 피해율은 여러 가지 학교 폭력의 유형에 따라 그 비율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금품갈취, 구타, 협박, 괴롭힘 등의 전형적 유형의 학교 폭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율은, 1.2%로 가장 적은 심각한 구타 신체 폭력에서부터 11.2%로 가장 높은 언어폭력이다. 그 중 심각한 학교 폭력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피해율은 심각한 언어폭력이 2.2%, 심각한 구타 신체 폭력이 1.2%로 1-2%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사이버 폭력 피해율은 인터넷 관련 욕설, 사기 등의 피해율은 6-11%대, 인터넷 관련 폭행 피해율은 2.5%정도이나, 아이디 도용 피해와 같은 유형은 20.8%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전형적인 유형의 학교 폭력보다 더 높은 피해율을 보여주기도 했다.

남녀별 피해율은 전반적으로 남학생의 피해율이 여학생들보다 높으나, 괴롭힘의 유형인 억지로 답안지 보여주기, 놀림, 따돌

림의 경우에는 남녀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사이버 폭력 피해의 유형인 인터넷 게시판 관련 욕설에서도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휴대폰 음성 문자를 통해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듣는 피해의 경우에는 여학생들의 피해율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초·중·고교별 피해율은, 전반적으로 볼 때, 중학생이 가장 높았던 2001년과는 달리 초등학생 피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금품갈취나 심각한 구타 신체 폭력 등 물리적 접촉이 일어나는 비행의 경우에는 중학생들의 피해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행의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물리적 폭력의 경우, 학교 폭력 피해자들이 기억하는 주된 가해자들은 '같은 학교 같은 학년 학생'인 사례가 많았고, 폭력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는 '방과 후'나 '쉬는 시간'에 '교실 안'이나 복도' 등이 많았고, 사실보고 대상으로 초등학생은 주로 '가족'인 반면, 중학생 이상은 친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의 경우, 가해자의 수는 두세 명이 가장 많았으며, 물리적 폭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보고 대상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이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한편 사이버 폭력의 경우는 주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실보고 대상은 주로 '친구'가 많았으며, 폭력 피해율은 2001년에 비해 대체적으로 감소했다. 그 중 '가벼운 성추행'의 피해는 고등학생들에게 '심각한 성폭력'의 피해는 중학생들에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대부분은 모르는 사람과 같은 학교동급생에게 성폭력의 피해를 당했고, 당한 시간은 방과 후나 일요일·휴일이 가장 많았다. 피해를 당한 장소는 대다수가

‘기타’ 장소로 응답했고, 학교 내에서는 주로 교실 안이나 복도 등이 많았다. 피해를 당한 후에는 친구에게만 그 사실을 이야기하거나 아예 알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에 비해 광역시나 서울의 학생들에게 피해가 잦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2001년과 2002년 사이에서 큰 변화는 없었으며 아직도 적지 않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이병기(1999). 학교조직 풍토와 학교내 폭력과의 관계 연구, 한국외국어대학 석사학위논문.
- 이상균(1999). 학교내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명신(1998).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 연구, 공주대 석사학위논문.
- 윤진(1996). “2020, 청소년 병리-폭력”, 사회정신건강연구소 개소 기념 심포지움 자료.
- 청소년대화의 광장(1996). 때리는 아이, 맞는 아이.
- 청소년폭력예방재단(1996). 학교폭력, 고통 받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한울림.
- 정보통신윤리위원회(2001). 어린이 \*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실태 및 학부모 \* 교사의 불건전 정보 대응 실태 조사.
- 정보통신위원회(2000). 인터넷 환경이 청소년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 치안연구소(1996). 학교주변 폭력 실태 및 유형에 관한 연구.
- 한국정보문화센터(2000). 2000 정보생활 실태 및 정보화 인식 조사.
- 한국청소년개발원(2001). 학교폭력의 최근 동향과 문제점에 관한 고찰.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1).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 \_\_\_\_\_ (1997). 학교주변 폭력의 실태와 대책.



한국청소년개발원(1995). 청소년의 폭력에 대한 의식 및 실태 조사.

Archer, J. & Browne, K. (1989). *Human Aggression: Naturalistic Approaches*, Routledge.

Berkowitz, L.(1974). "Some Determinants of Impulsive Aggression: Role of Mediated Associations with Reinforcements for Aggression", *Psychological Review*, 81:165-176.

## ABSTRACT

### **A Longitudinal Study on the Bullying at School in Korea**

Kim, Jun-Ho\* · Kim, Seon-Ae\*\*

This study employed a longitudinal design to investigate the trend of Korean School Bullying. Compare to 2001 the findings of 2002 study shows that the volume of the various school bullying has decreased slightly and that the victim rate of the elementary schools exceed that of the middle schools. The boys are more likely to be the victim of bullying than girls, although the bullying related with cellular phone are more popular among girls. The on-line bullying is more prevalent than the off-line counterpart.

The students are more likely to be victimized by the students of the same school, usually after school, while the class room is the most frequent place where the bullying occurred. The students who experienced school bullying chose their friends as the most favored person to share their unhappy affliction. The bullying occurred more frequent in bigger cities than small cities and towns.

Although we found sight different findings between 2001 and 2002 survey,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major

---

\* Korea University

\*\* Korea Nazarene University

---

characteristics of the school violence did not change a lot and that many students still suffer from the various types of school bullying in Korean school.